

# 축 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과 친애하는 법과대학 교수, 학생 여러분.

오늘 사법개혁과 법조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법학계에서도 법학교육 쇄신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이번 법과대학에서 「사법개혁과 법조양성」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보니 법원과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분쟁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분쟁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해결하느냐는 국가와 사회 자체의 文化力量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대법제도를 수립한 지 1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의 틀과 결에 맞는 사법제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주제도 의미있는 產苦라고 보여 집니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의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해 가는 법률가의 자질도 중요한 사항임을 잊어서는 아니되며, 그런 뜻에서 법학교육의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학교육의 學制, 교과내용, 그리고 사법시험과의 연관을 단순히 법학계와 사법부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과 국가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충분히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맺어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데 노고가 많으셨을 서원우 학장님을 비롯한 법과대학 교직원 여러분께 謝意를 表하면서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총장  
김 중 운